

자매 훈련

해밀턴

2024년 봄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이름:

교회:

SISTERS' TRAINING SPRING 2024

| | FRIDAY | SATURDAY | LORD'S DAY |
|----------------------------|---|------------------------------------|----------------------|
| 7:00 a.m. – 7:30 a.m. | | Rise, Dress, Morning Revival | |
| 7:30 a.m. - 8:15 a.m. | | Breakfast | |
| 8:15 a.m. – 10:00 a.m. | | Fellowship and Pursuit | |
| 10:00 a.m. – 10:30 a.m. | | Morning Tea | |
| 10:30 a.m. – 12:30 p.m. | | Session 2 | Session 5 |
| 12:30 p.m. – 1:00 p.m. | | Lunch | |
| 1:00 p.m. – 3:00 p.m. | | Rest and Fellowship | Clean Up / Depart |
| 3:00 p.m. – 3:30 p.m. | | Afternoon Tea | |
| 3:30 p.m. – 5:30 p.m. | | Session 3 | |
| 5:30p.m. – 6:00p.m. | | Dinner (6:30p.m. – 7:00p.m.) | |
| 7:30 p.m. – 9:30 p.m. | Session 1 (8 p.m. – 10 p.m.) | Session 4 | |
| 9:30 p.m.- 10:00p.m. | Supper (10:00p.m.- 10:30p.m.) | Supper | |
| 10:00 p.m.- 10:15 p.m. | Room Prayer (10:30 p.m. – 10:45 p.m.) | Room Prayer | |
| 10:15 p.m. | Lights out (10:45p.m. – 11:00 p.m.) | Lights out | |

GENERAL REMINDERS

MEALS & DINING

1. **Breakfast**

All sisters will eat in the C-Block dining room.

2. **Lunch and Dinner**

We will use both the C-Block and T-Block dining rooms.

3. **After Meals**

Please clear your own dishes, cups and cutlery after your meal and dispose of any rubbish in the bins provided.

SECURITY & ALARMS

1. **Building Alarms**

All the buildings are alarmed from 11 p.m. to 6 a.m. Please take care to remain inside the buildings within these times.

2. **Security**

All sisters should be out of C-Block by 10:30 p.m. so that the brothers can do their security checks.

3. **Fire Alarms**

Do not use any hair dryers in the accommodation and bathroom areas. In the past, the fire alarm was set off and the training centre was charged a call out cost of \$1000.

4. **Emergency Doors**

Do not use any emergency doors to enter or exit the building (e.g. A-Block basement doors, emergency doors in the C-Block meeting hall). Please use only the main entrances.

아 1:1 솔로몬의 아가.

I.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이끌림

1:2-2:7

A 매혹되어 그리스도를 좇아 달려감

1:2-4 상

- 2 “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3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쏘은 관유 같아요. /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4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B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가 게 됨

1:4 하-8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답니다.
5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난 비록 검으나 사랑스럽답니다, / 계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6 내가 검다 하여 나를 흘겨보지 말아요. / 햇별이 나를 그을려 놓은 탓이니깐요. /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내며 /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었답니다. / 하지만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였어요.
7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 주세요.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시나요? / 한낮에는 어디서 양 떼를
쉬게 하시나요? / 어찌하여 나는 당신 벗들의 양 떼 곁에서 / 얼굴이 가려진 이처럼 되어야 하나요?”
8 “여인들 중 가장 어여쁜 이여, /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 목자들의
천막 곁에서 /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먹이도록 하오.”

C 그 영께서 다시 만드심으로써 변화됨

1:9-16 상, 2:1-3 상

- 9 “내 사랑이여, 나 그대를 / 파라오의 병거들 가운데 있는 암말에 비유하리다.
10 장신구로 땀은 머리가 드리워진 그대의 두 뺨과 / 보석 꿰미들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사랑스럽기만
하오.”
11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식을 박은 / 금사슬을 만들어 주리다.”
12 “왕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 나의 나드가 그 향기를 내뿜었어요.
13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주머니 / 밤새 내 젖가슴 사이에 있지요.
14 내 사랑하는 이는 내게 / 엔게디 포도원들에 있는 고벨화 송이랍니다.”
15 “오, 아름다워라, 내 사랑이여! / 오, 아름다워라!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도오.”
16 “오,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아름답고 참으로 감미로워요.

D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누림으로써 만족함 -

1:16 하-17, 2:3 하-7

/ 참으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답니다.

- 17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 우리의 서까래는 편백이랍니다.”

C 그 영께서 다시 만드심으로써 변화됨(계속)

2:1-3 상

아 2:1 “나는 샤론의 장미 /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2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처럼 / 내 사랑이 딸들 가운데 그리하여라.”

3 “수풀 속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 내 사랑하는 이가 아들들 가운데 그리하시답니다.

D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누림으로써 만족 함(계속)

2:3 하-7

/ 그이 그늘에 나 기뻐 앉아 있었고 / 그이 열매 내 입에 달콤하였답니다.

4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이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5 건포도 과자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 사과로 나를 신선하게 해 주세요. / 나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요.

6 그이 왼손은 내 머리 밑에 있고 / 그이 오른손은 나를 감싸 안는답니다.”

7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II.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벗어나도록 부름받음

2:8-3:5

A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2:8-9

8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9 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B 간청받고 격려받음

2:10-13

10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응하여 말하네요.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11 이제 겨울이 지나고 / 비도 그쳐 물러가니 말이오.

12 땅에는 꽃이 피고, / 노래의 때가 되니 / 우리 땅에는 산비둘기 소리가 들린다오.

13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익어 가고 /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발하고 있소. / 일어나 주오, 내 사랑
/ 내 어여쁜 이여, 어서 와 주오.

C 십자가와 하나 됨 안에 있도록 부름받음

2:14-15

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15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 주오, / 꽃이 한창인 / 우리의 포도원들을 망치는 / 작은 여우들을.’ ”

D 연인이 거절하고 실패함

2:16-3:1

16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 그이는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답니다.

17 날이 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까지 / 내 사랑하는 이여, 돌아와 / 베데르 산들의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

3:1 “나는 밤마다 내 침상에서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였네.

E 연인이 깨어나고 회복됨

3:2-4

2 나 이제는 일어나 성안을 다니며 / 거리와 광장에서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으리라. / 나는 그이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네.

3 성안을 다니며 파수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네.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보셨나요?’

4 나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 내 혼이 사랑하는 그이를 찾고는 / 그이를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네. / 내 어머니의 집으로, / 나를 잉태하신 이의 방으로 그이를 이끌어 들이기까지.”

F 그리스도께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믿는 이들에게 명령 하심

3:5

5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 내가 그대들에게 가젤이나 들의 암사슴을 걸고 맹세하게 하니 /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 그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마오.”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1

첫 번째 단계에서의 이김

(1)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 그분의 목적을 이룸

성경: 아1:1-4, 요14:21, 23, 21:15-19

I. 모든 영적 원칙들은 아가서에 있는 추구하는 이의 이기는 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과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공과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1:1, 골2:6.

- A. 거듭남은 하나님의 유전 인자를 우리 안에 가져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의 모든 체험이 이 유전 인자 안에 있다—요일3:9, 막4:26.
- B. 원칙적으로 아가서에 있는 모든 높은 영적 중점들은 이미 우리의 것인데, 그것은 그 중점들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고 우리 안에서 자라날 하나님의 유전 인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롬8:10, 골2:19.

II.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한 인격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인격을 누릴 다른 길이 없다—막12:30.

- A.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종일 누린다면,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한 즉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계2:4, 7.
- B.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은 한 인격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을 체험하고 누렸든지간에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현재의 임재, 현재의 인격이 필요하다—요8:12, 빌3:13-14.
- C.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아들을 사랑하는 이들과 거처를 함께하심을 보여준다.
 - 1.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임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신다—참조 고전2:9-12.
- D.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이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이상이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행26:14-19, 고후4:6-7, 빌3:8-10상, 13, 참조 신4:25.

III.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반드시 개인적이어야 한다—아1:4상.

- A.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야 한다—대하20:7, 사41:8, 약2:23, 창18:1-33.

- B. 우리는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의 동반자였던 모세의 본을 따라야 한다—출33:11.
- C.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찾았던 다윗과 아삽의 본을 따라야 한다—시27:4, 8, 80:3, 7, 14-19.
- D. 우리는 그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셨던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매순간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셨다—행10:38하, 요8:29, 16:32.
- E.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고 자신의 타고난 힘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른 베드로의 본을 따라야 한다—요 21:15-19, 막16:7.
- F.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았던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후2:10, 5:9, 14, 20.

IV.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반드시 애정 어린 것이어야 한다—아1:2.

- A.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은혜는 우리의 어머니시다—롬8:15-16, 갈 4:24-26, 사66:12-13.
- B.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마9:15, 고후11:2.
- C.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형님이시다—요20:17, 롬8:29
- D.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마11:19, 요15:12-17.
- E.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시다—사9:6.
- F.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시다—요일2:1.
- G.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요14:16, 16:13.
- H.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다—시23:1, 뱀전2:25.

V.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반드시 사적이어야 한다—아1:4하.

- A. 우리는 은밀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적으로 주님을 접촉하여, 그분의 빛 비추심과 주입하심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열어야 한다—마6:6.
- B. 지상 최고의 직업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주입을 받아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출33:11, 고후3:16, 18, 4:1, 참조 마14:23, 막1:35, 눅5:16, 6:12, 9:28.
- C.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거처로, 충족함의 비결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시 31:20, 90:1, 91:1, 빌4:13.

VI.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한다—아1:4하.

- A.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방문하신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이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침공이다—고전15:45하, 롬8:16, 딤후4:22.
- B.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해야 한다—엡1:17, 2:22, 3:5, 16, 4:23, 5:18, 6:18.

VII. 우리와 주님의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사적이고, 영적인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케 하며, 우리를 교회 생활 안으로 인도하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새에 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아1:7-11, 엡4:11-12, 고전3:12상.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2

첫 번째 단계의 이김

(2)

교회 생활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됨

성경: 아1:9-16상, 2:1-4

- I. 첫 번째 단계의 이김에서(아1:2-2:7)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는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힘으로 세상의 매력을 이긴다—1:2-4, 마4:16-20, 눅9:23-24, 히12:2, 13:13, 찬송가 333장.
- II.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힘에 달린 것이 아니다—그것은 그분의 사랑스러움에 달려 있다—아5:10-16.
- A.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전체가 사랑스러움의 문제이다—찬송가 138, 141, 142장.
 - B.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일단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아1:2-4, 막12:30, 고전2:9.
 - C. 주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시며 그분의 모든 연인들도 사랑스럽게 만드신다—아4:10.
- III.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분을 사랑한 후, 우리는 반드시 유일한 한 공과—복종함—를 배워야 한다—1:9-11.
- A.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의지의 복종에 대해 말한다—10절, 4:1, 4.
 - B. 우리의 의지가 복종될수록 우리는 더 변화될 것이다.
 - 1. 1장 10절에서, 사랑하는 분은 추구하는 이가 그분께 순복하는 사랑스러움(땀은 머리털로 아름다운 두 뺨)과 변화시키시는 영에게 순종하는 그녀의 아름다움(구슬 꿩미가 있는 목)을 감상하신다.
 - 2. 4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연인의 순복과 순종 가운데서 그녀의 아름다움(무리 염소 같은 머리털)을 본다.
 - 3.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분께 순복하는 의지(다윗의 망대 같은 목)를 가져 아름답다.
- IV. 그리스도의 연인은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아름답게 된다—1:7-2:4.
- A. 우리가 이기는 이들인가 패배한 이들인가는 우리의 혼의 변화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롬12:2.
 - 1.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일은 사실상 그분의 왕국을 시행하심이다.
 - 2. 변화는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성한 신진대사로 바뀌는 것이다—아1:9-11, 15, 2:1-2.

- B. 교회 생활 안에서 변화는 변화시키시는 영에 의해 수행된다—고후3:18.
1.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그 영의 개작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한다—아1:9-16상, 2:1-2.
 2. 변화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추구하는 믿는이들 속으로 밀어 넣어 그들의 미덕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롬12:2, 9-21.
- C. 그리스도의 연인은 타고난 강한 사람(말)에서 단일한 눈(비둘기 같은 눈—마3:16, 10:16)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백합화—마6:28)으로 변화된다.
1. 그분은 그 영에 의한 단일한 눈(비둘기 같은 눈)으로 그분을 앙망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신다—아1:15.
 - a.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아름다움 중 두드러진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단일한 눈이다—마6:22.
 - b. 비둘기 같은 눈은 주님을 응시하는 데서 오는 영적 투시력을 상징한다—고후3:18, 히12:2.
 2.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진 후에 그녀는 백합화가 되는데, 백합화는 그녀가 이제 자신의 타고난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아2:1-2.
- D.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에는 어떤 ‘변화시키는 이들’—추구하는 이들을 도와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돕는 온전케하는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1:11, 엡4:11-12.
1. 그들은 추구하는 이의 표현(뺨)에 있는 장식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금사슬)을 가진 그 영의 변화시키심을 통해 하나님께 순복하게 함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한다—아1:10-11.
 2. 온전케 된 이들은 그 영과 협력하여, 추구하는 이를 아름답게 하는데, 그것은 구슬케미로 표현된 신성한 생명을 가진 변화시키시는 영의 분배를 통해서이다—10절.
- E. 변화는 잔치이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다리를 저는 므비보셋처럼 왕의 상에 앉아 왕의 풍성을 누린다—12절, 삼하9:1-13.
1. 다윗은 므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고, 그의 유업을 회복해 주었으며, 그를 초대하여 그와 같은 상에서 잔치를 누리게 했다—7절.
 2. 므비보셋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받은 후 다윗의 상에 있는 풍성만을 주목했을 뿐 상 아래 있는 그의 저는 다리를 주목하지 않았다—4:4, 9:13.
 3.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저는 다리’는 잊어버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화를 위해 누려야 한다—아1:12, 2:4, 히12:2, 엡3:8, 찬송가 403장.
- F. 그리스도의 연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향기를 토하는 나도 기름과 같다—아1:12, 막 14:3, 요12:3.
1.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연인의 나도 향유 가운데서 표현되었다—아1:12.
 2.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 나도 향유가 되어야 한다.
 3.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족게 하시어 우리가 나도 향유를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나도 향유 안에 있는 그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만족게 한다.
- G. 그 연인과 사랑하는 분 모두가 아름다우며, 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이것은 변화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연인 사이의 상호 감상을 산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15-16상, 사33:17상, 시45:11상.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3

두 번째 단계의 이김

(1)

부활의 능력과 풍성에 의해 십자가의 삶을 살아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을 건축함
성경: 아2:8-14, 마3:13-17, 마16:24, 21:32

I.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서 얼마간의 성공을 거둔 후, 자신을 그리스도의 임재와 분리시키는 벽인 격리가 되는 자기 성찰에 빠진다—아 2:9.

- A. 자기 성찰은 자신을 들여다보며 분석하는 자기 점검이다. 자아는 자기 성찰로 조성된다—참조 고전4:3-4.
- B.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주목할 가치가 없다—히12:1-2 상, 요3:14-15, 12:31-32, 민21:4-9.
 - 1.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자기 성찰로 인해 절망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녀를 봄날로 부르고 계신다—아2:10, 참조 히3:7-8, 요8:58.
 - 2. 그녀가 자신을 들여다 볼 때는 동면의 겨울이지만, 그녀가 눈을 돌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그녀는 봄의 단계, 부활의 단계로 들어간다—아2:10-13.

II.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을 통해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된다—14절.

- A.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추구하는 이인 그분의 비둘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즉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가파르고 비밀한 곳이신 그분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신다—아2:14, 갈 2:20.
- B.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의한 것, 산을 달려오고 언덕을 뛰어가는 ‘새벽의 암사슴’ 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한 것이다—시22의 제목, 잠4:18.

III. 우리는 반드시 매일 죽어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풍성들이신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고전15:31, 36, 눅9:23, 빌3:10, 참조 호6:1-3.

- A. 우리는 반드시 시대의 이상과 사역 안으로 들어감으로 의의 길을 취하여, 우리가 다만 죽고 장사지내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의 강림과 아버지의 말씀하심을 누려야 한다—마3:13-17, 21:32, 참조 겔3:1-3.
- B.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위해, 복합된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효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소중한 죽음과, 격퇴하는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소중한 부활을 누려야 한다—출 30:23-25, 롬14:17-18, 참조 빌1:19-21, 2:13, 3:10, 4:11-13.

- C.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양식이다—마26:39, 히10:5-10, 요4:34.
1.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에 있는 각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품고 모든 성도들을 품어 진정한 하나를 갖는 것이다—엡4:1-3, 13, 고전1:10, 빌2:2.
 2.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는 자아가 완전히 부인될 때, 또한 우리가 자신을 중심 삼지 않고 몸을 중심 삼을 때 실재화된다—요17:21-23, 고전12:24-25.
 3. 우리의 바깥 환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의 속 존재에 있는 예수 죽인 것인 십자가가 함께 역사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개조한다—고후 4:10-12, 12:7-10, 13:3-4.
 4.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중재하게 하여, 우리의 생명이신 용서하시는 주님을 취하여 주님의 믿는이들을 받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망을 퍼뜨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골3:12-15, 잠25:15, 20, 26, 롬15:7, 16:17, 민6:6-7, 레 5:2.
- D.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전1:9, 2:2, 15:45하, 58.
- E.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어, 우리의 매일의 ‘항생제’ 이신 그분을 취해야 한다—계2:7, 벰전2:24, 3:18, 요6:57.
- F.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한 받으신 그리스도를 밀의 땅으로 누리고, 부활하신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보리의 땅으로 누려야 한다—신8:8, 요12:24, 6:9.
- G.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신 그분을 흘러 내보냄으로써 성소에서 짓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전10:4, 요19:34, 출17:6, 민20:8, 18:1, 렘2:13, 요7:37-39, 겔47:1, 계22:1.
- H. 우리는 우리의 거처, 우리의 피난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아2:14, 시90:1, 91:1, 31:20, 83:3, 사32:2, 출33:22, 참조 마6:6, 요14:23.
- I. 우리는 뒤섞이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아2:2, 왕상7:17-20, 마6:28.
- J.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사탄의 화신이자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혼의 화신인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롬1:9, 마16:22-24.
- K.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을 사시어 신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간 미덕들로 살아 내신 주 예수님의 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분을 내재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는 것이다—요5:30, 벰전2:21, 갈6:17-18.
- L.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빌3:3, 살전3:13, 참조 잠25:28, 28:25-26, 29:23.
- M.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우리의 쓴 상황과 존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치유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출15:22-27, 벰전2:24, 계2:7, 마9:12.
- N. 우리는 반드시 죽이고 부활시키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서’ 우리 자신을 주님과 지속적인 접촉 안에 지켜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 머물러야 한다—롬8:2, 10, 6, 11, 13.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4

두 번째 단계의 이김

(2)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 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아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됨**

성경: 아2:8-3:5, 마16:24, 빌3:10

I. 우리는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묘사된 대로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A.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이 부분에서 그분은 그분의 부활의 활력과 능력을 나타내신다.
- B. 그리스도께서는 산을 달리는 노루와 언덕을 뛰어넘는 어린 사슴으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 주시어 그분의 연인을 힘 있게 하신다—8-9절.
 - 1.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자아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다—마 16:24.
 - 2.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빌3:10, 아2:14.
- C.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의 무성한 풍성으로 그분의 연인을 격려하신다—11-13절.
- D. 부활의 실재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어 내주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고전15:45하, 6:17.
- E.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여 자아에서 구출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다.

II.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갈6:14, 2:20, 3:1, 고전2:2.

- A. 십자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때문이다—롬6:6, 히2:14, 요12:24.
- B.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한 인격—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과 한 길—십자가—를 주셨다—고전2:2, 빌2:5-11.
- C.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십자가로 처리하신다—골1:20, 2:14-15.
- D.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높이시고 존중하시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갈6:14.
 - 1.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길의 중심성과 우주성이다—골1:20, 2:14-15.
 - 2. 영적으로 전진하며 교회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고전1:2, 9, 18-22, 2:2, 3:6, 9, 12:27.

III. 우리는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마16:22-24, 눅9:23-25.

- A. 자아는 사탄의 체현이다—마16:24.
 - 1. 사탄의 어떤 것이 혼에 더해졌을 때 혼은 자아가 되었다.
 - 2.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고가 인간의 혼에 주입되었을 때, 혼은 부패되어 자아가 되었다—창 3:1-6, 마16:22-25.
 - 3. 자아는 혼 더하기 사탄적 사고, 사탄의 생각이다—23절.
 - 4. 자아 안에 있는 것은 사탄과 합병되는 것이다—22-24절.
- B.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하는 혼이다—창3:1-6.
 - 1. 언제든지 혼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때, 혼은 즉시 자아가 된다—고전2:14.
 - 2.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한다. 자아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지 않는다—마16:22-23, 6:9-10, 13하, 33.
- C. 자아는 몸을 건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이다—16:24, 엡4:16.

IV. 아가서 2장 8절부터 3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연인을 십자가와의 하나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신다.

- A. 십자가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상징된다—2:14상.
- B. 그리스도께서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인 십자가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14하.
- C. 빌립보서 3장 10절은 아가서 2장 8절-14절과 부합된다. 여기에서 묘사된 십자가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것이다.
 - 1. 객관적인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갈2:20.
 - 2. “네 맘에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자아 대하여 죽고 주 대하여 살도록” —찬송가 366장 후렴.
- D. 자아에서 구출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원되는 것을 의미한다—아2:8-3:5.
 - 1. 우리는 자아의 주관성—자아를 중심으로 삼고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에서 구출되어야 한다—눅9:23.
 - 2. 우리는 자아의 특이함—우리의 치우치고 비뚤어진 성격들—에서 구출되어야 한다—참조 롬 8:29.
 - a. 우리의 특이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더 풍성한 체험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지 못하게 한다—엡3:8, 4:16, 빌1:20-21상.
 - b. 우리의 특이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참조 요11:25.
 - 3. 우리는 자아를 사랑하는 데서 구출되어야 한다—눅9:24, 계12:11.

V.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자아에서 구출된 결과는 우리가 부활 생명의 무성함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하게 되고,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사는 것이다—빌3:10, 골2:19, 롬12:4-5, 15, 고전12:12-27.

전체 주제:
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

메시지 5

두 번째 단계의 이김

(3)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십자가를 체험함

성경: 아2:14-15, 롬 6:6, 마16:24, 빌3:10, 엡2:16, 시43:4상

I.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아2:14.

- A.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연인이 십자가, 즉 ‘바위틈’ 과 ‘낭떠러지 은밀한 곳’ 에 머물기를 원하신다—14절 상.
1. 신약에서 십자가의 일차적인 의미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고후 4:10-12, 찬송가 461장.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빌3:10.
- B. 자아를 처리하는 십자가의 역사에는 세 방면이 있다.
1.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계시가 있어야 한다—롬6:6, 고후5:14.
 2. 우리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성취된 사실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롬 6:11, 갈2:20.
 3. 우리는 그분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올바른 의미이다—마16:24, 갈5:24.
 - a. 그 적용은 반드시 그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롬8:13.
 - b.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갈5:16, 25.
- C.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빌3:10.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넣으셨고, 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매일 우리를 주조하고 계신다—롬6:3-4.
 2. 우리의 삶은 그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해 죽는—것이어야 한다—갈2:20, 고후4:10-11.
 3.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넣어 누르는 것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로 주조될 것이다—롬8:28-29.

II.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 이니라”-아2:15.

- A.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연인을 부르시어 그분의 연인을 위한 부활(꽃이 핀 우리의 포도원들)을 망치는 그녀의 특이함, 습관, 자기 성찰(작은 여우들)을 주의하게 하신다.
- B.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치우치고 비뚤어져, 주로 우리의 특이함에서 표현된다—행13:13, 요삼 9-10.
 - 1. 특이함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궁극적인 표현, 즉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마지막 최종 표현이다.
 - 2. 특이함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강한 지배자요 지휘자이다—참조 잠21:1.
 - 3. 우리의 특이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요인이다—참조 빌1:19-21상.
 - 4.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터를 우리의 특이함이 간교하고 은밀하게 강탈하고 소유했다. 그러므로 특이함은 우리 속에 있는 끔찍한 적그리스도이다—참조 엡3:16-17상.
 - 5. 우리 속에 있는 분열적인 요인은 우리의 특이함이다. 이것이 바깥에 있는 모든 분열의 뿌리이다—행15:36-39.
- C.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특이함에서 구출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특이함을 가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때 부활이 따라올 것이다—마16:24, 아2:11-13.

III.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 안에’ 있다—엡2:16.

- A. 몸은 자아와 대립된다. 몸의 원수는 자아이다—골2:18-19, 23.
 - 1. 몸의 이상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몸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아이다—18, 23절.
 - 2. 몸의 건축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것은 자아이다—마16:18, 24.
 - 3. 우리가 몸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자아가 정죄되고, 부인되고, 거절되고, 거부되어야 한다—눅 9:23-24.
- B. 십자가의 역사는 몸으로 완결되고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끈다—엡2:16, 롬6:6, 8:13, 12:4-5.
 - 1. 십자가는 우리를 몸 안으로 이끌며 몸의 범위 안에서 운행한다. 몸은 십자가가 역사하는 영역이 된다—엡2:16.
 - 2. 몸의 제한은 우리의 자유를 가져가고 우리를 십자가로 몬다.
 - 3.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 극도로 처리된 때에만 우리는 몸의 생활의 실재를 만질 수 있으며 몸을 알 수 있다—마16:24-25, 롬8:13, 12:4-5, 고전1:18, 23, 2:2, 12:12, 27.

IV.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지극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시43:4상.

- A. 제단,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다—겔43:13-27.
- B.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알고 받아들이는 지점에 이르러야 한다—갈6:14, 마16:24.
- C.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처에서 십자가를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올 때 구체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체험한다—엡2:15, 21-22.
- D.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교회 생활의 실재 안으로 이끌려진다—마16:18, 24.

십자가 - 우주의 중심

우리가 어떤 문으로 성전 안에 들어오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제단으로 올 것이다. 예외는 없다. 제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부활 안에 계시는 분이신 놀라운 하나님-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반드시 제단으로 와야 한다.

제단은 성전 구내의 중심에 있다. 제단은 성전의 안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전 구내 전체의 중심이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은 사실상 우주의 중심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땅이 중심이다. 땅의 중심은 가나안 좋은땅인 팔레스타인인데, 그것은 그 땅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연결 중심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은 좋은 땅의 중심이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이며, 제단은 성전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제단이 우주의 중심이다.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므로, 이것은 십자가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를 아는 것은 긴요한 것이다. 피상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십자가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곳이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십자가는 이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상징한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오셨을 때에도 제단에 도달하셨다. 그러므로 제단은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이다. 어떤 사람이 복문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은 남문으로 들어온다면 둘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서로를 제단에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거처에서 나와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죽으셨다. 먼저 그분은 그분의 거처를 떠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땅에서 삼십 삼 년 반 동안으로 사신 후 그분은 제단으로, 십자가로 가셨다. 그분은 거기서 죽으실 때 혼자가 아니셨다.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을 입으셨다.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도 거기서 죽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죽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만났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영향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그분이 얼마나 사망을 통과하시든 간에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사실상 사망은 그분을 해방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처에서 나오셔서 십자가로 가시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을 예로 들 수 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심겨질 때 죽는다. 이 죽음은 끔찍한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한 알의 밀의 죽음이 놀라운 것이라고 말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죽음이 없이는 밀알 속에 있는 모든 풍성과 아름다운 것들이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 알의 밀의 죽음은 끔찍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이다. 같은 원칙으로, 죽음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12:24)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많은 밀알들로 번성하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로 말씀하셨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그분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들이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심지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 종결되실 수 없다.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종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죽음을 통해 해방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단인 십자가에 가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것을 알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람도 죽었고, 이 죽음은 사람의 종결을 의미한다. 사람과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의 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해방되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해방이었고, 우리에게 놀라운 종결이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제단의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동시에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풍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었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거기서 종결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은 우리를 종결하고 하나님을 해방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처에서 십자가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건축의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올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체험한다. 중심에 있는 제단에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갖는다. 있는 주님과 교통신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를 분명히 만지고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사람 안에서 사는 것

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느끼는 지점에 이끌린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돌파를 갖게 하고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한다. 그 결과 우리는 타고난 생명이 무엇 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옛 창조가 벗겨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 심인십자가에 대한 체험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들었지만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은 극소 수라는 것을 나는 슬퍼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결혼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서로 말다툼을 한다면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거나 비방을 들을 때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담의 생명과 옛창조가 종결된 것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해 해방된 하나님의 풍성과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누린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은 제단에 관한 이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제단에 이르러 번제가 되는 것이 위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올 마음이 없었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문을 통해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속한 것이고, 그분의 긍휼에 속한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관심하시고 우리에게 도달하신 것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초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편안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만족하게 된다. 이것도 또한 주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다. 우리가 제단으로 전진하지 않고 바깥 마당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결국 영적인 모든 사람들, 주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종결되고 심지어 주님께 의해 파괴되기까지 하는 제단에서 마친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께서 이유없이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버기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죽음에 넘기신다. 마담 기욤은 이것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가져가는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번에 영원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듭거듭 체험한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전환을 가질 때마다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어떤 때는 그들의 자녀를 통해 십자가를 만날 것이고, 어떤 때는 그들의 배우자나 질병을 통해 십자가를 만날 것이다. 또 어떤 때는 교회나 동역자들을 통해 십자가를 체험할 것이다. 십자가가 도처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했다.

우리는 제단을 통과해야만 성전에 올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지만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약의 중심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인 제단에 오고 나서 성전에 온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를 떠나서는 교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실재 안으로 이끌린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참된 교회 생활을 갖는다. 한편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써 함께 모여 교회 생활을 실행한다. 또한면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만 교회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이끌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옛 창조, 우리의 자아, 타고난 생명을 가진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다 처리될 것이다. 우리의 인성에 근원을 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종결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실재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진정한 동역을 갖게 될 것이며, 조화와 안식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신 곳인 성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현이요, 교회의 실재이다.(*에스겔서 라이프-스타디*, 영문판 236- 241, 246- 247쪽)

Upcoming Events

| | |
|---|-----------------------------------|
| National Highschoolers' Camp <i>Queenstown</i> | 28 September – 1 October 2024 |
| National Intermediates' Camp <i>Lake Taupo</i> | 18 – 20 October 2024 |
| Jubilee Week <i>Hamilton</i> | 17 – 23 November 2024 |
| Summer School of Truth <i>Ngaruawahia</i> | 27 December 2024 – 3 January 2025 |

For more information and to register, please visit
www.nztc.ac.nz/events

